127페이지 2번째줄

토지를 넘기고 소작인이 되는 자와 도시로 가 날품팔이를 하러 나가는 자도 많았고, 한편으로는 토지를 매집하여 지주가 된 자가 나오는 등 농민 사이에서 빈부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민이 작물을 스스로 제품을 가공하여 도매상에게 파는 가내공업이 발달해 왔습니다. 18세기경부터 상품을 매집하여 도매상이 농민에게 직조기나 돈을 미리 빌려주고 포를 짜게 하고 제품을 싸게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도매제 가내 공업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합니다. 19세기경에는 대상인이나 지주 중에도 공장을 건설하고 사람을 고용하여 분업으로 제품을 만드는 자도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공장제 수공업 (매뉴팩처)라고 하고 근대 공업이 발전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농민 봉기와 차별 강화

18세기가 되면서 농촌에서는 다양한 마을이 단결하여 영주에게 연공의 경감과 부정하게 일하는 다이칸 교체 등을 요구하는 농민 봉기가 일어나 다이묘의 성 아래에까지 밀어닥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쌀을 독점한 상인에 대한 습격과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쿠후와 한은 에타 신분, 히닌 신분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상생활과 복장에서 더욱 통제를 강화하고 농민 봉기를 억누르기 위해 농민과 대립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차별받았던 사람들은 서로 도우면서 생활을 높여갔고 인구 증가도 보였습니다.

5. 타누마의 정치와 칸세이 개혁	타누마 오기츠구와 마쓰다이라 타다노부의 정책에는 어떠한 특색이 있었던 것일까요?

타누마의 정치

18세기 후반, 로쥬였던 타누마 오키츠구는 상공업자가 상공업 조합을 만드는 것을 장려하고 이것을 특권으로 주는 대신 영업세를 거두었습니다. 또 나가사키에서의 무역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수출품인 구리의 전매제를 실시하고, 에조치 조사를 행하고 타와라 모노의 수출을 확대했습니다. 또 오키츠구는 인바 늪에 대한 간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상공업이 활발하게 되어 자유로운 풍조 속에서 학문과 예술이 발전했습니다만 지위나 특권을 구하는 뇌물이 횡행했습니다. 또 1782년에 일어난 텐메이 기근은 다음해 아사마산의 대분화 등에 의한 흉작으로, 전국에 퍼져갔습니다. 각지에서 농민 봉기와 습격과 파괴가 일어나 오키츠구는 로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칸세이 개혁

1787년에는 에도와 오사카에서 대규모의 파괴와 습격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중에 로쥬가 된 마쓰다이라 사다노부는 할아버지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정치를 이상으로 하는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에도 등에 나와있던 농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흉작과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 각지에 창고를 세워 쌀을 저장하게 하고 상품작물 재배를 제한하였습니다. 또 에도의 유시마에 쇼헤이자카 가쿠몬쇼를 만들어 여기에서 주자학 이외 학문을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시험을 시행해 유능한 인재의 등용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검약령을 내리는 한편 하타모토와 고케닌이 후다사시로부터 빌렸던 돈을 말소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정치 비판을 금지하고 출판을 엄하게 통제했으므로 사람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1792년에 러시아 사절 락스만이 에조치의 네무로에 내항하여 표류민인 다이코쿠야 코우다유를 바래다주고 통상을 요구하자 막부는 나가사키에서 교섭하라고 회답했습니다. 1804년 나가사키에 온 러시아 사절 레자노프에 대해 막부는 국교가 있는 조선, 류큐와 무역을 하고 있는 네덜란드, 중국 이외의 나라와는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국가의 결정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러시아를 경계한 막부는 에조치와 카라후토(사할린) 조사를 행하여 19세기 전반까지 에조치를 막부가 직접 지배지로 하였습니다.

재정난에 신음하는 여러 한

여러 한은 17세기 후반으로부터 제정이 악화되어 한사츠라고 불리는 한 독자의 지폐를 발행하거나 가신의 봉록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18세기 후반에는 여러 한에서도 개혁을 행하였습니다. 요네자와 한(야마카타 현)과 쿠마모토 한은 각각 칠기의 도료와 망둥어 등 특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전매제를 채택하여 재정을 재정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조사해봅시다

1 해체신서와 2개의 해부도

스기타 겐파쿠는 실제 해부에 함께 참여하여 자신이 배운 중국 해부서와 다른 유럽의 해부서 타헤르 아나토미아의 그림이 실제 인체와 꼭 닮은 것에 놀라 이것을 번역했습니다.

당시의 해부는 차별받는 사람들이 행하였습니다.

6. 새로운 학문과 카세이 분카	사회의 변화 속 발전한 학문과 문화에는 어떤 특색이 있었던 것일까요?

국학과 난학

일본 고전의 연구가 진행된 18세기 후반, 모토오리 노리나가가 일본 고유의 전통을 평가하는 코지키텐을 써 국학을 집대성했습니다. 국학은 천황을 모시는 사상과 결부되어 막말의 존왕양이운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같은 시기 스기타 겐파쿠 등이 유럽 해부서를 번역하여 "해체신서"를 출판하고 네덜란드어로 유럽의 학문과 문화를 가르치는 난학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네덜란드어 사전과 문법책을 짓거나 네덜란드 의학서를 번역하는 이도 나타났습니다. 난학을 배우는 이들은 점차 늘어갔고 근대화의 기초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18세기말, 막부에서는 유럽의 천문학을 도입하여 일본 독자의 달력을 만들었고 19세기 초가 되면 민간 출신 이노우 타다타카가 유럽의 기술로 전국 해안선을 측량하여 정확한 일본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카세이 문화

19세기 초인 분카·분세이 년간에는 문화의 중심이 교토·오사카로부터 에도로 옮겨졌습니다. 주로 제11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나리 시기로, 서민들을 중심으로 해 발전한 문화를 카세이 문화라고 합니다. 가부키는 무대나 곡목이 연구되었고 라쿠고(만담) 등 소극장이 수없이 만들어지고 스모도 인기를 모았습니다. 에도를 중심으로 발전한 이런 문화는 지방에도 퍼져갔습니다.

우키요에의 기술도 발전하여 스즈키 하루노부가 니시키에라 부르는 채색 판화를 시작하였습니다. 니시키에는 크게 유행하여 토슈사이 샤라쿠는 인기 가부키배우의 그림을 그렸고 키다가와 우타마로는 미인화, 카츠시카 호쿠사이와 우타가와 히로시게는 풍경화에서 우수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런 작품은 유럽 회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학에서는 막부를 비판하거나 세태를 비꼬는 센류와 쿄카가 유행했습니다. 책대여점이 발달하고 짓펜샤 잇쿠의 골계본 "토카이도츄 히사쿠리게"와 타기자와 바킨의 "난소 사토미 팔견전" 등의 장편소설이 사람들에게 많이 읽혔습니다. 하이카이(하이쿠)에서는 요사 부손이 그림같은 풍경을 표현하고 고바야시 잇사는 농민의 소박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또 서민도 여행을 하기 쉽게 되어 온천 요양이나 관광을 겸한 신사 참배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1)]

교육의 확대

교토나 오사카 등에서는 학자가 사숙을 열어 무사 뿐 아니라 죠닌이나 농민의 입문도 허락하였습니다. 오사카의 의사 오카다 코앙의 테키쥬쿠에는 전국으로부터 제자가 모였습니다. 나가사키에서는 네덜란드 상관의 의사 시볼트가 의학쥬쿠를 열어 수술 등을 행해 보였습니다. 여러 한에는 한코우가 설립되어 무사에게 학문과 무도를 가르치고 인재 육성을 꾀하였습니다. 서민 사이에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도시와 농촌에 많은 테라코야가 열려 읽기, 쓰기, 주산 등 실용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르쳤습니다.

---

1) ❸ 특히 이세 참배는 서민의 동경이 되어 연간 수 십 만 명의 사람들이 이세신궁을 참배했습니다.

1792 락스만 내항	1804 레자노프 내항	1808 페톤호 사건	1837년 모리슨호 사건	1853년 페리 내항
러시아의 사절 락스만이 표류민인 다이코쿠야코오다유우를 바래다 주고 통상을 요구. 막부로부터 나가사키 내항 허가를 얻음	러시아 사절 레자노프가 통상을 요구했지만 막부는 거부했다. 러시아에 돌아가는 도중 일행의 일부가 에조치를 습격하였다.	영국 군함 페톤호가 네덜란드선을 잡기 위해 나가사키항을 침입, 네덜란드 상관원을 잡고 장작과 물, 음료를 요구한다.	미국 상선 모리슨호가 일본 표류민을 데려다 주고 통상을 요구. 우라가와 야마카와에서 격퇴시켰다.	미국 군인 페리가 군함 4척을 이끌고 우라가에 내항, 일본 개국을 욕

7. 외국선 출현과 텐포 개혁	사회의 변화 속 발전한 학문과 문화에는 어떤 특색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국선타불령과 오시오의 난

19세가가 되면서 러시아 뿐 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 배도 일본에 접근하게 되어 1808년에는 영국 군함이 나가사키항구에 침입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페톤호 사건). 1825년, 막부는 이국선 타불령을 발표하여 표류민을 인도하고 통상을 요구한 미국 상선을 포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리슨 호 사건), 난학자 와타나베 가잔과 타카노 쵸에이는 외국선 타불을 비판하는 책을 썼기 때문에 1839년에 막부에 의해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반샤의 옥)

1830년대에는 텐포의 기근이 전국을 덮쳐 많은 아사자가 나오고 농민 봉기와 습격과 파괴도 재차 일어났습니다. 전직 오사카 마치부교쇼의 관리였던 양명학자 오시오 헤이하치로[2]는 부교쇼의 대응에 불만을 갖고 1837년에 제자 등 300명 가량의 대상인을 인솔하여 쌀과 금을 기근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습니다. (오시오의 난) 막부는 관리의 반란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2) ■ 오시오 헤이하치로 양명학로서도 유명하고 스스로 재산을 투입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오시오의 난은 하루 만에 진압되었지만 전국에 알려지거나 각지에서 오시오의 제자를 칭하는 봉기가 발생했습니다.

역사에 액세스 - 시부조메 봉기
재정난에 힘들어하고 있던 오카야마 한은 1855년, 영내에 29개조의 검약령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는 에타신분에게만 해당하는 명령이 있어, 의류를 감색 염색이나 남색 염색으로 제한하는 등 농민과 달리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농업도 하고 연공도 납부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차별은 참을 수 없으므로 영내 53개촌이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속에 약 절반의 마을로부터 천 수 백 명이 일어서서 한의 관리와 교섭하고 마침내 탄원서를 수리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한은 검약령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템포의 개혁

1841년에는 로쥬 미즈노 타다쿠니[3]가 막부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 템포의 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검약령을 내리고 상인의 화려한 풍속을 단속하였고 정치 비판과 풍기를 어지럽히는 소설 출판을 금지하였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영업을 독점하고 있는 도매상 조합 해산을 명하고 에도에 날품팔이로 나와있는 농민을 고향 마을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타다쿠니는 아편전쟁으로 청이 영국에게 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국선타불령을 중지하고 일본에 기항하는 외국배에게는 연료인 장작이나 물을 줄 것을 명하는 한편으로 군사력 강화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쵸시[4]로부터 에도 만까지 수로를 만들기 위해 인바 늪의 개발을 재개하고 또 에도와 오사카 주변 농촌을 막부 영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이묘나 하타모토의 강한 반대를 만나 타다쿠니는 개혁 개시로부터 대략 2 년 여 만에 로쥬를 사임하게 되어 개혁은 실패하였습니다.

유한의 성장

주로 서일본의 여러 한은 재정을 재건하기 위해 독자적인 개혁을 행하였습니다. 사츠마 한(가고시마 현)은 아마미 군도에서 재배되는 흑설탕 전매제와 류큐를 시켜 밀무역 등으로 경제력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히젠 한(사가 현·나가사키 현)은 도자기를 전매제로 하고 유럽에 수출하였습니다. 죠슈 한(야마구치 현)은 시모노세키에서 다른 한의 배를 상대로 금융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비젠 한과 사츠마 한, 죠슈 한은 외국배에 대해 군비를 강화하고 반사로[5]를 건설하여 대포 등을 제조했습니다. 이들 한은 유한이라고 불리어 막부에 대해 정치적인 발언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외국 배의 출현과 막부에 대응에 대해서 다음 3나라를 들어 각각 설명해 봅시다. ① 미국 ② 영국 ③ 러시아

3) 5 12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요시의 신임을 받아 개혁을 행하였다. 막부의 권위를 고쳐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4) 지바현 쵸시市
5) 7 화염을 반사시켜 고온을 내어 질 좋은 철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왼쪽은 죠슈한, 오른쪽은 막부가 만든 반사로입니다.

우키요에에 그려진 풍경들로부터 우키요에를 찾는다.

우키요에를 찾다. 도쿄도 타이토오구, 분쿄구

에미상은 학교 근처 우에노온시 공원에 있는 시미즈 관음당 앞에서 새롭게 심어진 소나무 가지가 둥글게 구부러져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학교 수업으로 우키요에를 학습할 때 그 소나무가 우타가와 히로시게가 그린 "에도 명소 백경"의 "우에노산나이 츠키노 마츠'를 재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조사할 테마를 정한다.

에미상들은 근처에 있는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교과서에 이름이 나오는 스즈키 하루노부와 우타가와 히로시게, 카츠시카 호쿠사이 등의 우키요에를 보거나 도서실과 인터넷에서 우키요에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에도 시대에 대량으로 우키요에가 만들어진 것과 유럽에까지 전해져 고흐 등의 화가가 우키요에를 모아 묘사한 것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미상들은 조사 중에 나왔던 의문을 기반으로 학습 과제를 세우고 더 자세하게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룹 학습과제

· 왜 우키요에를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했던 것일까?
· 우키요에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까?

2. 지역 사람에게 인터뷰를 해본다.

에미상들은 사이큐지라는 절에 카츠시카 호쿠사이의 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실제로 절을 방문하여 주지로부터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 호쿠사이는 인물과 동물을 그렸기 때문에 해부학을 배웠다.
· 호쿠사이는 "후가쿠산쥬롯케이" 외에도 "호쿠사이 망가"와 책의 삽화 등을 그렸다.

여기에서는 자기 주변에 남아있는 풍경과 그림 등으로부터 역사를 조사하는 예가 소개되었습니다. 역사탐험대의 방법도 참고로 하여 주변 지역을 조사해 봅시다.

3. 우키요에 만들기를 체험해 봅시다.

또한 에미상들은 조사할 때 보았던 우키요에가 많이 복각되어 있어 현재도 우키요에를 만들어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미상들은 현재도 우키요에를 만들고 있는 다카하시 공방을 방문하여 우키요에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 우키요에는 화가, 새기는 사람, 찍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의 분업에 의하여 제작되었다.
· 케와리와 보카시, 카라스리 등 다양한 기술이 있다.
· 판화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했다.

- 우키요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팔렸을까요?
- 에도시대의 우키요에 가격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 우키요에는 어떻게 유럽에 전해졌을까요?
- 고흐는 왜 우키요에를 모사했던 것일까요?

역사 속 이슬람 문화

이슬람교가 퍼져간 지역은 독자 문화를 창출하거나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창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현대 우리들의 생활에 빠질 수 없는 것들 중에는 이슬람 세계에서 생겨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슬람 세계에서 생겨난 문화가 역사 속에서 담당해 온 역할을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1 아라비아 문자가 써있는 코란

현재 일본어를 비롯해 여러 가지 언어에서 코란을 읽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코란 그 자체가 아니라 해설서라고 합니다.

2 2세기 이슬람교 국가들

이슬람교의 확대

무함마드 사후 그 후계자들은 아라비아 반도 외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여 급속하게 영토를 확대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슬람교도 퍼져가 서쪽으로 투르크와 이베리아 반도, 동쪽은 이란과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슬람교 국가가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퍼져감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는 무함마드 때부터 아라비아어로 전해져 코란도 각지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각지의 이슬람교도는 인종과 민족이 다름에도 종교가 같다면 서로를 동료로 보게 되었고 아라비아어를 공통어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습니다.

이슬람교와 유럽 문화

급속하게 영토를 확대해 가고 있던 이슬람교 국가는 7세기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8세기에는 이베리아 반도부터 현재 프랑스에 진출하고자 하는 등 유럽의 크리스트교 국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세계와 유럽 세계는 적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문화나 학문에서 깊게 연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중세 서유럽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학문이 르네상스 시기까지 잊혀져 있었지만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 세계가 이러한 학문을 아라비아어로 번역하여 흡수하고 더 발달시켰던 것입니다. 당시 서유럽 사람들은 이러한 이슬람 세계의 학문을 십자군과 이베리아반도를 경유하여 열심히 수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에서는 고대 그리스부터 발달한 기하학을 기초로 이슬람 세계에서 대수학이 발생했습니다. 대수학은 현재 중학교에서 배우는 함수 그래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또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계산용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라고 불리는 것처럼 이슬람 세계가 기원입니다. 또한 0을 처음으로 수식으로 사용한 것도 소수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이슬람 세계 사람들이었습니다.

과학에서는 현재 쓰이고 있는 알콜과 알칼리 등 “알”로 시작하는 것은 이슬람 세계가 기원인 것이 많이 보입니다.

이 외에 의학이나 신학도 이슬람 세계에서 발전했지만 알타이르[6]와 베가[7], 데네브라는 별의 이름도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을 발전시킨 이슬람 천문학의 유산입니다.

또 인도와 이슬람 세계의 민화를 기반으로 하여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는 중세 이슬람 세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뱃사람 신밧드의 모험과 알라딘과 마법램프 등의 이야

---

6) 견우성
7) 직녀성

기를 중심으로 유럽 외의 지역으로 번역되어 현재에는 세계인에게 친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카페트과 유리 등의 미술·공예품, 커피와 설탕, 향수 등도 이슬람 세계를 기원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접점

이슬람 세계는 중국과 인도와 유럽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고대 그리스 문화를 받아 발전시킴과 동시에 풍부한 아시아의 문화를 유럽에 전하는 창구 역할도 담당해 왔습니다. 종이와 화약, 나침반이라는 후세에 커다란 영향을 준 신기술과 트럼프와 체스와 같은 오락도, 중국과 인도로부터 이슬람 세계가 가지고 들어가 개량한 후 유럽에 전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중세 유럽 세계가 적극적으로 이슬람 문화를 흡수하려고 했던 한편으로 이슬람 세계의 사람들은 유럽을 뒤쳐진 세계로 취급하고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 서서히 유럽이 힘을 갖게 되어 갔습니다. 특히 대항해 시대에 들어서 유럽인이 이슬람 세계를 경유하지 않고 인도와 중국에 직접 교역하거나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하여 유럽의 크리스트교 국가가 이슬람 국가보다 우위에 서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트라이

평소 생활 속에서 이슬람 세계가 기원인 것이 이것 외에 또 없는지 찾아봅시다.

에도의 에코 사회

에도시대, 서민은 절약을 위해 노력하여 생활용품도 철저하게 재활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에도시대의 생활 방법이 에코로지 사회의 본보기로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에도시대의 에코사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옷과 생활용품의 재활용

에도시대의 서민의 다수는 에치고야 등 신품을 판매하는 포목상은 없었고, 에도 거리 여기저기에 있는 헌옷 가게에서 옷을 사 입었습니다. 헌옷 가게에도 비교적 새 옷을 파는 가게부터 꽤 오래된 것을 파는 가게까지 다양했습니다. 서민은 자신의 경제력에 맞춰 옷을 선택하고 사회 전체로서 재활용이 행해진 것입니다. 보통 입는 유카타 등은 옷감을 사와서 가정에서 바느질하고 오래되서 밖에서 입을 수 없게 되면 잠옷으로 하였고 또 기저귀와 걸레로 사용하고 마지막에는 아궁이의 연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냄비나 솥 등의 생활용품도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가 있어서 구멍이 뚫려도 수리해서 사용했습니다. 우산 등도 오래된 것을 매입하는 업자가 있어 망가진 대나무 뼈대를 바꾸고 새로운 기름 종이를 펴서 재생하였습니다. 폐지조차 쓰레기가 되지 않고 이것을 주워모아 사들이는 업자에게 팔아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리사이클 상품으로서의 비료

쌀을 담는 가마니는 벼농사의 부산물인 짚을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서민의 신발인 짚신도 짚으로부터 만들었고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밭에 쌓인 발효시킨 짚과 가축 우리의 깔개로 썼던 짚, 또 태운 짚의 재까지 비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도시 근교의 농촌에서는 도시 주민을 상대로 야채 등의 상품 작물 생산이 성행했습니다만 이들 작물을 짓기 위해 대량의 비료가 필요했습니다. 금비(돈으로 산 비료)로서 말린 정어리 등도 사용되었습니다만,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것은 도시 주민이 내놓는 분뇨였습니다. 분뇨는 근교 농민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사들여졌으므로 돈이 되는 상품으로서 중요시되어 쓰레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파리와 런던 등 유럽 도시에서는 하수도가 발달했습니다만, 이것은 분뇨를 도로에 버리는 사람이 많아 악취가 나고 비위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농민이 정기적으로 분뇨를 회수하고 있었으므로 하수도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막말에 일본에 온 외국인은 모두 일본의 청결함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도시대는 물건을 고쳐쓰는 것이 가능한 만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로 재활용하는 과정에 관해서 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에도시대의 에코 사회는 서민이 가난하고 그들에 있어서 생활용품이 비교적 고가였다는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 같은 면도 있었습니다만, 에도시대 사람들은 그러한 생활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물자가 적은 에도시대에 행해진 리사이클의 방법에는 생활의 지혜가 넘쳐나고 있어 우리들에게도 배워야할 바가 많이 있습니다.

트라이

평소 버려버렸던 것으로 리사이클 가능한 것이 없었는지 찾아봅시다.